



농촌진흥청, 2026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재경부 주관)

2026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농촌진흥청 소관 정책사항을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연번	달라지는 제도
1	현장 실정 반영한 가축분뇨발효액의 공정규격 완화
2	농업인 온열질환 예방 현장밀착 안전관리 지원
3	1급 치유농업사 국가전문자격시험 첫 시행
4	가축분 퇴비 비료사용 처방 개선
5	신선농산물 「CA 수출·품질관리」 통합 서비스

붙임 2026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주요 사업 내용

가축분뇨발효액의 주성분 최소함유량을
0.3%에서 0.2%로 완화하였습니다.

- 현장 실정 반영한 가축분뇨발효액의 공정규격 완화 -
농촌진흥청 농자재산업과 (☎ 063-238-0828)

농·축산업인, # 비료, # 가축분뇨발효액

< 현장 실정 반영한 가축분뇨발효액의 공정규격 완화 >

- 추진배경 : 가축분뇨발효액의 비료자원 활용을 확대하기 위해 현장 여건을 반영한 주성분 함량 기준 완화 필요
- 주요내용
 - '가축분뇨발효액'의 질소, 인산, 칼리 성분 합계량을 0.3%에서 0.2%로 변경
- 기대효과 : 농업과 축산의 자원 순환(경축순환) 및 화학비료 대체재 공급 확대로 비료비용 절감 및 탄소 저감에 기여
- 시행일 : 2026년 5월 12일(즉시 시행)

Q. 누가,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농작물 재배농가) 화학비료 가격이 상승하여도 이를 대체할 가축분뇨발효액을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어 경영비 절감 가능
- (축산농가, 자원화시설 등) 기존에는 주성분의 최소함유량 기준 미달로 폐기처리 해야 했던 가축분뇨발효액도 비료로 활용 가능
- (일반국민) 정화방류 등으로 처리하던 가축분뇨발효액의 자원화로 사회적 비용 절감 및 온실가스 배출 감소

Q. 예전과 달라지는 것은 무엇인가요?

구분	제도 시행 전	제도 시행 후
가축분뇨발효액 주성분의 최소함유량(%)	질소전량, 인산전량, 칼리전량 각각의 성분 합계량 0.3 %이상, 각 성분별 함량 보증할 것	질소전량, 인산전량, 칼리전량 각각의 성분 합계량 0.2 %이상, 각 성분별 함량 보증할 것

Q. 실제로 어떤 도움이 생기나요?

- 가축분뇨발효액은 관비(관수+비료)로 상시 공급할 수 있어 **화학 비료 사용량의 60~70% 이상 감소** 가능(2026년 농사로 영농기술)
- 폐기되는 가축분뇨 785만 톤 중 일부를 자원화 가능

Q. 궁금한 것은 어디에 문의하면 되나요?

- 농촌진흥청 농자재산업과 (☎ 063-238-0828)

☞ (참고) 농촌진흥청 누리집>보도자료>농촌진흥청, 가축분뇨발효액 기준 완화 완료 “비료 공급 안정과 자원순환 앞당긴다(2026.5.14.)”

한우200두를 키우는 이○○씨는 가축분뇨발효액을 비료로 쓰고 싶었지만 주성분 합계가 0.3%에 조금 못 미쳐 매번 폐기처리해야 했다. 처리 비용도 아까웠고 자원을 버린다는 게 항상 안타까웠다. 그러나 기준이 0.2%로 완화됨에 따라 '이제 우리 농장에서 나온 분뇨발효액을 인근 논밭에 비료로 줄 수 있게 됐다. 화학비료도 덜 쓰고 처리비도 아낄 수 있어 일거양득' 이라고 말했다.

**온열질환 예방요원이 고령농업인을
직접 방문하여 맞춤형 안전관리를 지원합니다.**

- 농업인 온열질환 예방 현장밀착 안전관리 지원 -

농촌진흥청 농업인안전과 (☎ 063-238-1037)

농업인, # 온열질환, # 폭염

< 농업인 온열질환 예방 현장밀착 안전관리 지원 >

- 추진배경 : 야외 농작업 활동이 많은 여름철에 고령 농업인은 온열질환에 취약하며, 사망 위험이 높음(체온조절 기능 저하, 초기대응 미흡 등)
- 주요내용
 - (현장밀착지원) 선도농업인을 예방요원(시군당 8명 이상)으로 선발, 고령 농업인 등 취약 농가를 직접 방문하여 폭염 위험노출 상황을 점검하고 맞춤형 예방 수칙을 안내
 - (예방물품보급) 폭염 알림 배지, 아이스 목밴드, 쿨토시, 냉각 조끼, 응급 구급 키트 등 폭염 대비 예방 용품 지원
- 기대효과 : 농업인 온열질환 피해 예방으로 안전한 농촌일터 조성
- 시행일 : 2026년 6월 1일

Q.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 91개 시·군(사업대상 지역)에 거주하는 온열질환에 취약한 고령 농업인

Q.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현장밀착 안전관리 및 예방용품 지원

Q. 예전과 달라지는 것은 무엇인가요?

구분	제도 시행 전	제도 시행 후
내용	정보 전달, 주의 당부 중심의 교육·홍보 · 리플릿 등을 활용한 일반적 예방 수칙 안내	현장 밀착형 능동적 안전 지원 · '온열질환 예방요원'이 고령농업인 등 취약 농가를 직접 방문하여 폭염 위험 노출 점검에 따른 맞춤형 예방수칙 안내·용품 지원

Q. 어떻게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사업 시행 지역인 91개 시·군 농업기술센터(농업인 안전업무 담당부서)에 신청

Q. 언제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여름철 폭염 중점 관리기간(2026년 6~8월) 동안 온열질환 예방 지원

Q. 실제로 어떤 도움이 생기나요?

- 농업인 온열질환 피해 예방 : 온열질환 예방요원의 안전관리를 통해 농업인 스스로 폭염 위험을 인지하고 대처할 수 있는 능력 향상 및 온열질환으로 인한 사고·사망 예방

Q. 궁금한 것은 어디에 문의하면 되나요?

- 농촌진흥청 농업인안전과 (063-238-1037)
 - 각 도 농업기술원 및 시·군 농업기술센터 농업인 안전업무 담당 부서
- ☞ (참고) 농촌진흥청 누리집>보도자료>“농촌진흥청, 농업인 온열질환 예방 본격 추진…발대식 개최(2026.5.18.)”

77세의 박○○씨는 여름철 혼자 논을 관리하다 몇 년 전 폭염에 쓰러진 경험이 있다. 그 이후로 가족들이 매년 여름이면 걱정을 놓지 못했다. 2026년 6월부터 온열질환 예방요원이 박씨의 농가를 직접 방문해 폭염 위험 노출 상황을 점검하고 온열질환 예방 안전수칙에 대한 설명과 함께 온열질환 예방가이드와 자율점검 체크리스트를 배부하였다. '누군가 직접 와서 괜찮은지 확인해준다는 게 마음에 큰 위안이 된다. 농사일 그만두라고 하던 자식들도 이제 좀 안심하겠다' 라고 박씨는 말했다.

치유농업서비스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1급 치유농업사' 국가전문자격시험 제도를 첫 시행합니다.

- 1급 치유농업사 국가전문자격시험 첫 시행 -
 농촌진흥청 농촌자원과 (☎ 063-238-1025)

#치유농업, #1급치유농업사, #국가전문자격시험

< 1급 치유농업사 국가전문자격시험 첫 시행 >

- 추진배경 : 고도로 숙련된 치유농업 전문인력 양성을 통해 대국민 치유농업 서비스 품질을 향상
- 주요내용 : 1급 치유농업사로서 갖추어야 할 전문역량에 대한 자격시험
- 기대효과 : 농업, 농촌 자원을 활용한 고품질 치유농업 서비스 제공을 통한 국민 건강 증진 및 사회적 돌봄비용 절감
- 시 행 일 : 2026년 9월(1차), 11월(2차)

Q. 누가 자격시험에 응시할수 있나요?

- 2급 자격 소지자 또는 관련 분야(농업, 보건, 복지 등) 경력·학위 등 법정 요건을 충족하고, 1급 치유농업사 양성기관의 교육을 이수한 사람

< 관련: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 >

Q. 1급 치유농업사 양성기관은 어디인가요?

- 수도권(서울특별시농업기술센터), 충청권(단국대학교 천안캠퍼스), 전라권(전주기전대학), 경상권(경상국립대학교)

Q. 예전과 달라지는 것은 무엇인가요?

구분	1급 제도 도입 전	1급 제도 시행 후 (2026년~)
자격체계	2급 치유농업사 단일 자격 운영	1급-2급 국가전문자격 체계 완성
양성기관	2급 치유농업사 양성기관 지정.운영	• 1급 치유농업사 양성기관 지정.운영(4개소) • 2급 치유농업사 양성기관 지정.운영(23개소)
전문분야	치유농업서비스 실무 및 운영지원	정신건강 및 재활 등 심화, 경영·관리 지원

Q. 어떻게 자격 취득을 할 수 있는지?

- 1단계(교육이수): 지정된 1급 양성기관에서 124시간(이론 60, 실습 64)의 교육과정 이수 후 수료증 발급
- 2단계(자격시험): 「치유농업ON」 시스템에서 1급 자격시험에 응시하고, 1차·2차 시험에 최종 합격 시 국가전문자격증을 발급

Q. 궁금한 것은 어디에 문의하고, 어디서 정보를 찾을수 있나요?

- 농촌진흥청 농촌자원과: 063-238-1025
한국농업기술진흥원 치유농업지원센터: 063-919-1365
- 치유농업 정보제공 포털인 “치유농업ON”을 통해 관련 정보수집, 시험일정 등을 확인 가능(6월 공고 예정)

○○원에치료센터 김○○ 대표는 치유농업사 자격증 취득 후 '노인복지관 등 시설에서 진행하던 치유농업 프로그램을 농장에서 직접 운영하면서 참여자 만족도가 향상되고, 운영소득 또한 20% 이상 높아졌다'고 말했다.

비료 비용 절감을 원하는 농업인은 가축분 퇴비
처방서를 더욱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 가축분 퇴비 비료사용 처방 개선 -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토양물환경과 (☎ 063-238-2464)

흙토람, # 가축분 퇴비, # 비료사용 처방

< 가축분 퇴비 비료사용 처방 개선 >

- 추진배경 : 비료가격 인상 등 비료수급에 대한 우려로, 화학비료를 대체할 수 있는 가축분 퇴비의 적정 활용을 위한 정보 요구가 급증
- 주요내용
 - (적용대상) 가축분 퇴비를 사용하려는 농업인
 - ① 표준 비료사용량에 화학비료 대체 퇴비량 자동 산정(「흙토람」)
 - ② 인근 대표 필지 분석값으로 퇴비량 처방 가능
 - ③ 자가퇴비 성분량 분석으로 정밀한 퇴비 처방 가능
 - (분석비용) 인근 시군농업기술센터 이용시 무료
- 기대효과 : 퇴비 활용 정보 접근성 개선을 통해 화학비료 의존도 감소, 농가 비료비 절감, 가축분뇨 자원 활용 촉진
- 시행일 : 2026년 7월부터 개선 사항별 순차적 시행

Q. 누가 정보를 활용할수 있나요?

- 가축분 퇴비를 농경지에 사용하려는 모든 농업인

Q. 어떻게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작물명, 재배면적으로 비료표준사용량 기준 퇴비량 확인>

「[흙토람\(soil.rda.go.kr\)](http://soil.rda.go.kr)」에서 '작물별 비료표준사용량 처방'을 클릭해서 작물명, 재배면적을 입력 후 퇴비처방량을 확인

- <토양검정(흙 분석)하여 정밀한 퇴비 처방: 2가지 방법 중 선택>

- ① 인근 시군농업기술센터에 토양시료를 의뢰하여 퇴비량 처방 받기
- ② 농가가 경작하는 필지에 토양검정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인근 대표필지 평균값을 활용해 처방 받기

- <자가퇴비 분석하여 퇴비량 확인>

농가가 자가 제조한 퇴비의 시료를 시군센터에 분석 의뢰하고, 자가퇴비 성분함량으로 맞춤 퇴비처방서 발급 받기

* 단, 농업기술센터에서 퇴비 분석이 가능한 곳에 한함

Q. 예전과 달라지는 것은 무엇인가요?

구분	기존	흙토람 개선 후
퇴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준사용 기준 화학비료만 처방 ▪ 토양검정(흙 분석)값 입력 시 퇴비처방 ▪ 퇴비 평균 성분함량으로 처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물명, 재배면적 입력시 퇴비량 처방(신설) ▪ 인근 대표필지 평균값으로 퇴비 처방 ▪ 농가 자가퇴비 성분함량 입력하여 처방(확대)

Q. 실제로 어떤 도움이 생기나요?

- 관행으로 과다하게 사용된 퇴비를 적정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여 농가경영비 절감과 환경보전에 기여

* 벼의 경우, 10a 당 질소 2.5kg, 인산 4.5kg, 칼리 3.2kg이 절감됨

Q. 궁금한 것은 어디에 문의하면 되나요?

-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토양물환경과: 063-238-2464
- 내 땅이 속한 시군농업기술센터 종합검정실

☞ (참고) 흙토람(soil.rda.go.kr)

경북 안동에서 벼농사를 짓는 이○○ 농업인(62세)은 올해 화학비료값이 크게 올라 영농비 부담이 커졌다. 퇴비를 활용해 화학비료를 대체하고 싶었지만 매번 토양분석을 의뢰하고 결과를 기다리기가 번거로웠다. 마침 2026년 하반기부터 인근 대표필지 평균값을 이용해서 퇴비 처방량을 알 수 있게 됨에 따라, '흙토람'을 통해 작물명과 재배면적만 입력하면 화학비료 대체 퇴비량까지 바로 계산해 볼 수 있어 훨씬 편리하다고 말했다.

원예작물 수출 농가 및 산업체를 위한
「CA 수출·품질관리」 누리집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 신선농산물 「CA 수출·품질관리」 통합 서비스 -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저장유통과 (☎ 063-238-6520)

신선농산물, # CA 컨테이너 # 선박수출

< 신선농산물 「CA 수출·품질관리」 통합 서비스 >

- 추진배경 : 신선농산물 선박수출 확대에 대응하여 현장 맞춤형 품질관리 및 유통정보를 체계적으로 제공할 통합 플랫폼 필요
- 주요내용
 - 「원예작물 CA 수출·품질관리」 누리집을 통한 최적 조건 검색 프로그램 구축
 - 수출품목 데이터베이스(DB) 확보 및 공정별 품질관리 콘텐츠 제공
 - ※ 대상작물 : 딸기, 참외 등 수출품목 20여 종
- 기대효과 : 수송기술 확보를 통한 수출국 확대 및 선박수송 품질 유지기간 연장
- 시행일 : 2026년 6월

Q.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 신선농산물을 CA 컨테이너(선박)로 해외에 수출하고자 하는 농가, 수출업체 및 물류 관계자 누구나

Q.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신선농산물 선박 수출을 준비하는 농가 및 유통업체
 - 선박 수출 관련 데이터 기반 정보제공으로 원하는 수출 시기, 국가, 품목, 수송기간에 맞춰 단일 및 혼합품목의 CA 컨테이너 최적조건(온·습도, O₂, CO₂ 등)을 즉시 검색 가능

Q. 예전과 달라지는 것은 무엇인가요?

구분	제도 시행 전	제도 시행 후
정보 제공	산발적인 수출 정보에 의존 및 혼합 품목의 선박수출 조건 파악 어려움	작물 DB 기반의 최적조건, 혼적 가능 여부 및 적재 요령 정보 원스톱 제공

Q. 어떻게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1단계(접속): 「원예작물 CA 수출·품질관리」 공식 누리집 접속
(www.nihhs.go.kr/caContainer)
- 2단계(검색): 메뉴(수출시기, 수출국, 품목, 수송기간) 선택
- 3단계(확인/적용): 도출된 품목별 최적 CA 조건과 혼적 조건, 적재 순서 정보를 확인하여 실제 선박 수출 공정에 바로 적용

Q. 실제로 어떤 도움이 생기나요?

- 물류비 절감: 비싼 항공수송 대신 저렴한 비용의 선박수송 확대
- 수출 경쟁력: 체계적 환경관리로 클레임 감소 및 원거리 수출국 개척

Q. 궁금한 것은 어디에 문의하면 되나요?

-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저장유통과: 063-238-6520

H사 수출팀장은 딸기·포도 등 다품목을 소량씩 선박으로 수출하고 싶었지만 CA 컨테이너 수송 조건 정보가 부족해 혼합선적이 가능한지조차 알기 어려웠다. 품목마다 온도·산소 농도 조건이 다른데 어떻게 섞어 실어야 할지 판단할 근거가 없었다. 2026년6월 누리집이 개설되면서 수출 시기와 품목을 입력하면 혼합선적 가능 여부와 권고 적재 순서까지 즉시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이제 생산자 단체와 사전 협의가 훨씬 쉬워졌고 클레임 걱정 없이 장거리 수출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신·구 대비표」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p style="text-align: center;">현장 실정 반영한 가축분뇨발효액의 공정규격 완화</p>	<p>□ 가축분뇨발효액 주성분의 최소함유량(%)</p> <p>○ 질소전량, 인산전량, 칼리전량 각각의 성분 합계량 0.3 % 이상, 각 성분별 함량 보증할 것</p>	<p>□ 가축분뇨발효액 주성분의 최소함유량(%)</p> <p>○ 질소전량, 인산전량, 칼리전량 각각의 성분 합계량 0.2 % 이상, 각 성분별 함량 보증할 것</p> <p>☞ (참고) 농촌진흥청 누리집>보도자료>농촌진 흥청, 가축분뇨발효액 기준 완화 완료 “비료 공급 안정과 자원순환앞당긴다” (2026.5.14.)</p>	「비료 공정 규격 설정」 고시 (’26.5.12.)
			농 촌 진 흥 청 농자재산업과 (063-238- 0828)
<p style="text-align: center;">농업인 온열질환 예방 현장밀착 안전관리 지원</p>	<p>□ 정보 전달, 주의·당부 중심의 교육·홍보 · 리플릿 등을 활용한 일반적 예방 수칙 안내</p>	<p>□ 현장 밀착형 능동적 안전 지원</p> <p>· '온열질환 예방요원'이 고령농업인 등 취약 농가를 직접 방문하여 폭염 위험노출 점검에 따른 맞춤형 예방수칙 안내 및 안전용품 지원</p> <p>☞ (참고) 농촌진흥청 누리집>보도자료>“농촌 진흥청, 농업인 온열질환 예방 본격 추진…발대식 개최(2026.5.18.)”</p>	2026.6.1.
			농 촌 진 흥 청 농업인안전과 (063-238- 1037)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1급 치유농업사 국가전문자격시험 첫 시행	<input type="checkbox"/> 2급 치유농업사 중심의 단일 자격 체계로 운영	<input type="checkbox"/> 1급-2급 국가전문자격 위계 확립 및 고속련 전문가 양성 ☞ (참고) 치유농업 정보제공 포털인 “치유농업ON”을 통해 관련 정보수집, 시험일정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6월 공고)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치유농업사 자격시험 시행 및 관리에 관한 고시 (2026.6월) 농촌진흥청 농촌자원과 (063-238- 1025)
가축분 퇴비 비료사용 처방 개선	<input type="checkbox"/> 표준비료사용 처방을 받을 경우 퇴비 시용 시 화학비료 대체량 별도 계산(토양검정) <input type="checkbox"/> 표준비료사용 처방을 해주는 「흙토람」 내 자동 산정 기능 없음 <input type="checkbox"/> 토양검정 결과 없으면 퇴비 처방 불가 <input type="checkbox"/> 직접 검정을 받아야만 처방 가능 <input type="checkbox"/> 맞춤 퇴비처방 기능 없음	<input type="checkbox"/> 「흙토람」 PC·모바일에서 화학비료 대체 퇴비량 자동 계산 제공 <input type="checkbox"/> 농가에서 즉시 영농 활용 가능 <input type="checkbox"/> 인근 읍·면·동 대표 필지 분석값 활용으로 처방 가능 <input type="checkbox"/> 토양검정 이력 없는 농가도 처방 서비스 이용 가능 <input type="checkbox"/> 자가퇴비를 사용할 경우 퇴비시료를 시군센터에 분석 의뢰하고, 자가퇴비 성분함량으로 맞춤 퇴비처방서를 발급	2026년 7월 부터 개선 사항별 순차적 시행 농촌진흥청 국립농업 과학원 토양물환경과 (063-238- 2464)
신선농산물 「CA 수출·품질관리」 통합 서비스	<input type="checkbox"/> 품목별 CA 수송 조건, 혼합선적 가능 여부, 품질관리 공정 정보가 개별 자료와 현장 기술지원 중심으로 제공되어 수출농가·업체의 접근성에 한계 <input type="checkbox"/> 혼합품목 선박수출 조건은 현장 경험과 개별 검토에 의존	<input type="checkbox"/> 「원예작물 CA 수출· 품질관리」 누리집을 통해 품목별 CA 조건, 혼합선적 조건, 품질관리 공정 콘텐츠를 통합 제공 ☞ 참고: 「원예작물CA 수출·품질관리」 누리집 www.nihhs.go.kr/caContainer	2026.6월 농촌진흥청 국립원예 특작과학원 저장유통과 (063-238- 6520)